

#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서

## (서면질문)

【건강관리과장 : 허영수 / 가족보건팀장 : 임재숙 / 주무관 : 간호6급 신은미】

연락처(☎) : 2600-5892

### 강미영의원 구정질문 내용

#### 1. 치매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개설과 지원책은?

□ 답변내용 ----- (건강관리과)

- 치매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강서구치매지원센터는 2009년 9월 28일자로 개소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치매예방인식개선, 조기검진, 등록관리, 인지훈련프로그램 지원 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치매통합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치매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습니다
- ○ 강서구치매지원센터 치매가족지원 프로그램 현황
  - 치매가족교육프로그램 『희망다이어리』
    - 목적 : 치매가족의 치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돌봄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사회적 지지를 통한 신체적, 정신적 부양부담감 감소
    - 대상 : 신규 진단 된 치매가족(회기 당 약 10명)
    - 일시 : 연중 3세트 운영(1세트 : 주 1회, 총 10회기)
    - 내용

회 기	강좌내용	회 기	강좌내용
1회기	치매이해하기	6회기	치매어르신과 즐겁게 사는법
2회기	부양 스트레스 이해하기	7회기	안전한 생활환경만들기
3회기	나와 가족의 건강관리	8회기	응급상황대처요령
4회기	가족과 희망찾기	9회기	치매예방활동
5회기	치매어르신 돌보기	10회기	지역사회 도움찾기

■ 치매가족 자조모임 『아름드리·너나들이·온돌누리』

- 목적 : 치매가족을 위한 활동프로그램을 통한 심리적 스트레스 완화를 도모하고 자조모임을 통한 정보공유 및 정서적 지지 마련
- 대상 : 희망다이어리 수료자 및 치매등록 가족 중 희망자
- 일시 : 연 중(월 1회)
- 내용 : 치매 및 노년기 만성질환 관리교육(고혈압, 당뇨, 뇌졸중 등)-공동 신체활동 프로그램(월빙댄스, 신바람노래교실 등):아름드리  
작업활동 프로그램(미술치료, 요리치료, 원예치료 등):너나들이  
운동위주 프로그램 : 온돌누리

○ 향후 치매가족지원 프로그램 개선 대책

- 치매어르신의 중증도(초기, 중기)에 따른 프로그램 구성을 통해 맞춤형 교육 실시
- 치매가족 부양자 특성에 따른 소모임 구성을 통한 자조모임 확대

#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서

## (서면질문)

【도시계획과장 : 홍재정 / 도시계획팀장 : 방준효 / 주무관 : 시설 7급 좌기탁】

연락처(☎) : 2600-6842

### 강미영 의원 구정질문 내용

2. 마곡동 벽산아파트와 마곡 어울림아파트 입구에 자동차 정비공장이 많이 있습니다.

각종 소음과 불법주차가 심하고 도색작업을 할 때는 코를 막고 다녀야 할 정도로 냄새도 심합니다. 이곳이 준공업지역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현재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입안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언제쯤 해결될 수 있을까요?

이곳은 우리들의 아이들의 등학교 길이기도 합니다.

#### □ 답변내용 ----- (도시계획과)

- 우리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강미영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마곡동 벽산아파트와 마곡 어울림 아파트 입구의 자동차 정비공장이 있는 지역은 준공업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입안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지역입니다.
- 현재 추진중인 준공업지역 변경내용을 설명드리면 우리구 관내의 아파트 등이 입지하여 준공업지역으로의 유지의 당위성이 떨어지는 지역인 마곡동 429 일대, 가양동 1495 일대, 가양동 14-3 일대, 염창동 299 일대, 등촌동 713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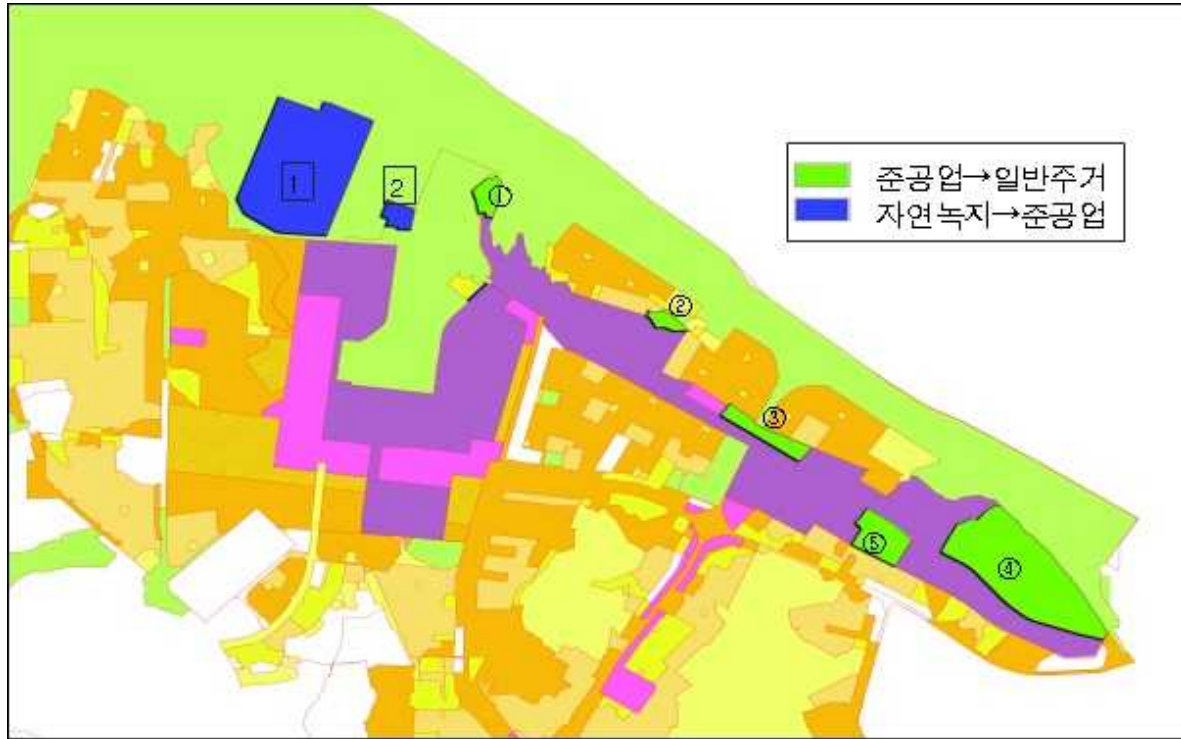
총 5개소 551,414㎡에 대하여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을 입안하여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열람공고, 구의회 의견청취,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서울시에 결정요청 하였습니다.

- 서울시에서는 “서남물재생센터에 대한 준공업지역의 지정 목적 및 필요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 필요”를 이유로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보류되어 현재까지 준공업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 우리구에서는 준공업지역의 일반주거지역 변경을 위하여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또한 준공업지역내 건축물의 용도 등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붙임 용도지역 변경 위치도 1부.

## □ 용도지역 변경 위치도

### ○ 위 치 도



### ○ 준공업지역 해제(준공업지역 → 일반주거지역)

연번	위 치	면적(m <sup>2</sup> )	비고
합계		551,414	
①	강서구 마곡동 429 일대 (벽산아파트 주변)	30,822	
②	강서구 가양동 1495 일대 (허준박물관 앞)	19,120	
③	강서구 가양동 14-3 일대 (가양역 주변)	51,174	
④	강서구 염창동 299 일대 (염창동 일대)	375,141	
⑤	강서구 등촌동 713 일대 (증미역 주변)	75,157	

### ○ 준공업지역 지정(자연녹지지역 → 준공업지역)

연번	위 치	면적(m <sup>2</sup> )	비고
합계		505,214	
1	강서구 마곡동 (서남물재생센터)	481,074	
2	강서구 마곡동 (마곡지구)	24,140	서울시 추진 (마곡개발과)

※ 마곡지구 내 준공업지역 지정(24,140m<sup>2</sup>)은 마곡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변경 시 별도추진

#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서

## (서면질문)

【의약과장 : 오영욱/ 의무진료팀장 : 김용환 / 주무관 : 행정8급 김은혜】

연락처(☎) : 2600-5943

### 강미영 의원 구정질문 내용

3. 의료관광 자문위원 구성 및 역할, 러시아 설명회 홍보방법 및 참가자 현황, 의료관광 설명회를 통한 환자유치수, 외국인 환자 예약 시스템

#### □ 답변내용 ----- (의 약 과)

-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해 힘쓰고 계신 강미영 의원님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 강서구 의료관광 자문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분야별 전문가 총 13명(구의원 2, 공무원 2, 의료기관 2, 유관단체 2, 관광공사 1, 숙박 1, 음식점 1, 여행사 1, 법조계 1)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 관내 의료기관, 강서구병원협의회, 한국관광공사, 관내호텔, 음식점협회, 여행사 등 의료관광과 관련된 각 분야별 전문가 집단으로써,
  - 정기회의를 통해 의료관광 동향파악, 앞으로의 발전방안 및 개선사항 등의 의견을 나누며, 이러한 제안 및 의견을 강서구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러시아(사할린, 블라디보스토크)는 강서구를 찾는 외국인 환자의 57%를 차지하는 의료관광 주력시장이며, 의료 설명회는 나눔(무료)진료와 병원소개 발표, 참석자의 비즈니스 상담(네트워킹)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 현지 언론매체(TV, 라디오)에 나눔진료 일정 홍보를 통해 강서구와 참여 의료기관의 명칭이 사전 노출되고, 설명회와 나눔진료 후에는 현장 취재형식의 언론보도(뉴스)를 통해 사후광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설명회 참석대상은 현지 사정에 따라 다르기도 하지만, 강서구에 환자를 송출하는 에이전시, 의료인(병원장)이 주요 대상이며, 정부기관(복지부), 나눔진료 참가 환자 등이 참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해외원정치료라고 할 수 있는 의료관광의 특성상, 의료 설명회 직후 즉각적인 외국인 환자 유치로 연결되기는 어려우나, 꾸준한 설명회 개최 및 홍보활동을 통한 외국인 환자와의 신뢰구축이 우선되어 최근 급격하게 외국인 환자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12년부터 추진한 해외 의료 설명회 개최로 강서구를 찾은 외국인 환자수가 2009년 207명, 2010년 1,094명, 2011년 1,150명, 2012년 867명, 2013년 1,437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 3년차에 접어든 강서구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은 외국인 환자 유치 시스템까지는 구축하지 못하고 있고,
  - 의료관광 코디네이터를 보유한 관내병원에서는 개별적으로 방문 환자에 대한 입국비자발급, 공항픽업, 진료예약, 숙소예약, 식당안내 등 체류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 점점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 환자의 수요에 맞춰 지역 관광지 가는 법, 추천 음식 등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검토 중에 있습니다.